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
배포일자		2023년 3월 30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 위생정책과	담당 자 • 위생정책팀장 임미숙 ☎440-2761 • 담당자 박미란 ☎440-2763	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선진 식문화 실천하는 안심식당 추가 지정
- 덜어 먹는 도구비치 · 위생적 수저관리 ·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천 업체 -
- 올해 760 업체 확대 지정 ... 위생용품 및 표지판 지원, 업체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-

인천시가 올해 안심식당을 76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▲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▲위생적인 수저관리 ▲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·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안심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외식산업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, 현재까지 3,699 곳의 안심식당을 지정 · 운영 중이다.

올해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15만원 이내의 위생물품과 지정업소 표지판을 지원 할 계획이다. 아울러 인천시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(naver), 티맵 등을 통해 지정업체를 홍보할 계획이다.

안심식당은 12월까지 연중 상시 모집하며,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소재지 군 · 구 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안심식당으로 지정 받은 업소는 식사문화 3대 과제 ▲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▲위생적인 수저관리 ▲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
시는 지정 희망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, 지정식당에 대해서는 상 · 하반기 식사문화 3대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안심식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인천시는 안심식당의 확대 지정을 통하여 선진화된 음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〈안심식당 표지판〉

